

# 혁신제도 촉진환경과 제도수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cilitating Condition and Adoption of Innovative Policy

이 건 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lgchan21@naver.com)  
강 인 원\*      경희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iwkang@khu.ac.kr)

### ABSTRACT

As the volume of South Korean trading increased, the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South Korea to perform export control system for strategic items (ECS) increased as well.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giving a tepid response toward the ECS, due to lack of the knowledge on psychological reactance of firm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al factors and the attitude toward the ECS, and the adoption of the ECS. The author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in this article which are useful for the government to find strategic policy direction.

*Keywords* : Innovative Policy, Policy Adoption, Government Communication, Psychological Reactance

### 1. 서 론

기업의 무역환경은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수시로 변화한다.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 다자무역주의 등이 도래하기도 하고 각국 간의 FTA 체결,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새로운 환경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예상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때문에 세계 무역시장에서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각국의 정부들은 세계 무역시장의 다양한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각종 새로운 제도나 정책, 법률들을 발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환경 구비를 위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수고와 노력에 비해, 혁신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 속도는 그리 빠르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정부의 혁신정책을 빠르게 수용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책이나 시스템, 체계 등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확산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학계에서는 혁신수용 및 확산이론 (innovation adoption and diffusion theory)이 많은 학자들에게서 지지를 받아왔다. 지금까지의 혁신수용 및 확산이론은 주로 새로운 기술 및 제품(Starky & Mckinlay 1988), 새로운 경영시스템(Kimberly &

†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0년 11월 18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20일

Evanisko, 1981) 및 마케팅도입(Kotler 1988), 새로운 제도나 법규 도입(Carroll & Huo 1986)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정부의 혁신적인 제도나 정책들의 수용과 확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혁신정책의 수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Moon & Bretschneider 1997)이나 혁신정책의 빠른 수용을 위한 촉진환경 요인들(Aschhoff & Sofka 2009)에 주목하여 왔다.

하지만 혁신정책은 정부가 강제성을 가지고 기업들의 수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이것은 혁신 정책의 수용과 확산이 늦어지는 주요한 걸림돌로 보고된다(Young & Post 1993). 따라서 정부가 혁신제도의 수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촉진환경들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에 따라 기업의 긍정 혹은 부정적인 수용태도를 조율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Allcorn & Diamond 1997).

혁신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태도는 심리적 반응(psychological reactance)을 관찰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간이 자유를 제한 당했을 때 반응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 TRS(therapeutic reactance scale)가 각광을 받고 있다. TRS는 Brehm(1966)의 심리적 반응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에 기반하여 인간의 반응패턴을 환경에 순응하는지, 주위의 눈치를 보는지, 불만을 품는지 등으로 나누어 측정하게 해 준다(Dowd et al. 1991).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정부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혁신정책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수용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 혹은 부정의 수용태도는 결국 혁신제도의 기업 내 정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혁신정책을 더욱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시행중인 전략

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예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제도의 다양한 촉진환경들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 수용태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둘째, 혁신제도의 부정적 수용태도를 줄일 수 있는 촉진환경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기업들의 혁신제도 수용태도에 따른 수용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혁신제도의 촉진환경

혁신정책이 기업들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제도에 대한 촉진환경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혁신제도의 확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촉진환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혁신제도에 대한 제도홍보 환경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에 앞서 기업들에게 이를 홍보함은 혁신정책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많은 정책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기업들의 인식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다(조성균 2007).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경우 그동안 정부는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홍보,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도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기업들의 인식이 빠른 시간 이내에 개선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은 정부의 반복적인 홍보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2006).

둘째, 혁신제도에 대한 지원정책환경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크게 서비스지원 환경과 인센티브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서비스지원은 기업들이 혁신제도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전문조직, 전문가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Steinfeld 2002).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경우에 정부는 국가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 전문조직으로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을 조직하여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비한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전략물자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Yestrade 2010). 특히 정부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시스템(www.yestrade.go.kr)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지식경제부·전략물자관리원 2008).

다음으로 인센티브 환경은 기업들이 혁신제도를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을 말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경우 정부는 인증제와 유사한 자율준수체계(compliance program: CP)를 마련하였다. 자율준수제도란 무역거래자가 독립적인 수출거래 심사 및 통제제도를 갖추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 기관장에게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 등 밀접하게 협력하여 스스로 수출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경우 중견 이상 기업에서의 CP도입은 수출통제를 위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지식경제부 2008).

셋째, 혁신제도에 대한 규제정책환경을 들 수 있다. 규제정책환경은 크게 모니터링 환경과 법적 제재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모니터링 환경은 정부가 기업들이 혁신제도를 잘 준수하는지 감시함과 동시에 기업들이 제도 이행에 있어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함을 의미한다(Moon & Bretschneider 1997). 아울러 법적 제재는 기업들이 혁신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하는 법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경우 정부는 해당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지, 과징금부과,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 2. 혁신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태도

제도 혁신의 대부분은 법과 규칙을 제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혁신의 주체는 정부가 되고, 기업체나 일반국민은 객체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새로운 정부정책은 공공의 이익이나 인센티브처럼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 처벌과 같은 규제가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다(Swan 1995). 따라서 수용자 입장에서는 자발적이든 피동적이든 간에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때문에 혁신의 수용 및 확산과정에서 기업들이나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규제나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피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Swan 1995). Brehm(1966)은 심리적 반발이론(psychological reactance theory)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가 제한당할 때 심리적 반발심을 느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Tracy et al.(1989)도 심리적 반발성은 정신 역동적 개념인 저항(resistance)과 비슷한 행동심리적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리학에서의 태도이론 중 심리적 반발심을 측정한 Dowd et al.(1991)의 심리적 반발성 척도(therapeutic reactance scale: TRS)의 연구에 기반하여 혁신제도를 수용하는 기업들의 태도를 긍정 부정의 두 가지 상반된 태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혁신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자 하는 순응타협(compliance to avoid conflict)이나 혁신을 새로운 규제로 인식하고 반발하는 도전적반응(resentment to authority)으로 구별하고자 한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는 정부가 제도 시행의 합당함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제도 이행을 위한 서비스지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지만 정부가 이를 감시하고 적발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기업들의 태도는 긍정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1: 혁신제도의 촉진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기업들의 순응타협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혁신제도의 촉진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기업들의 도전적 반응이 낮을 것이다.**

### 3. 혁신제도 수용행동

혁신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수용태도는 수용행동에 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Dhlstrom & Nygaard 1999). Schuman & Johnson(1976)은 태도가 행동을

예측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변수로 보는 태도-행동의 일관론을 주장하였고, 일관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학자(Fishbein & Ajzen 1975)들로 태도로부터 행동을 예측하는 직접적인 경로를 가정하지 않고 ‘행동의도’라는 매개변인을 상정하고 있지만 이들 연구 역시 태도-행동 간의 간접적인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포함시킴으로써 태도와 행동 간에는 일정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Brehm(1966), Tracy et al.(1989) 등 심리적 반발성(psychological reactance)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심리적 반발심은 강한 에너지와 행동적으로 지

〈표 1〉 측정항목

요 인	측정항목	연구자
제도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관련기관에서는 ECS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li> <li>정부/관련기관에서는 ECS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li> <li>정부/관련기관에서는 ECS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li> <li>정부/관련기관에서는 ECS에 대한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li> </ul>	조성균 (2007)
서비스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관련기관은 ECS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li> <li>정부/관련기관은 ECS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다</li> <li>정부/관련기관은 ECS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li> </ul>	Steinfeld (2002)
인센티브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들이 ECS 참여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크다고 생각한다</li> <li>기업들이 ECS 참여시 얻는 인센티브는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li> <li>기업들이 ECS 참여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li> </ul>	지식경제부 (2008)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관련기관에서는 기업들이 ECS를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li> <li>정부/관련기관에서 기업들이 ECS를 이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한다</li> <li>정부/관련기관에서는 기업들에게 ECS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li> </ul>	Moon & Bretschneider (1997)
법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들이 ECS 위반 시 받게 되는 무역제재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한다</li> <li>기업들이 ECS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이 크다고 생각한다</li> <li>기업들이 ECS를 위반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li> </ul>	지식경제부 (2008)
순응 타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우리회사가 ECS 미준수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li> <li>나는 ECS 미준수 때문에 우리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li> <li>나는 우리회사가 ECS 미준수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li> <li>나는 주위 기업들이 ECS를 준수하는 분위기라면 우리기업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li> </ul>	Dowd et al. (1991)
도전적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는 정부에서 ECS를 준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불쾌하다</li> <li>나는 정부에서 ECS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화가 난다</li> <li>나는 ECS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li> <li>나는 우리 회사는 ECS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li> </ul>	
혁신제도의 기업 내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회사에 ECS를 준수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li> <li>우리회사에 ECS 이행을 위한 기업 내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li> <li>우리회사 내에 ECS를 장려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li> </ul>	Dhlstrom & Nygaard (1999)

주) ECS(export control system):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향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반발상태가 곧바로 행동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반발 태도는 다른 분야와 달리 태도-행동 간의 인과관계가 보다 직접적이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3: 기업들의 혁신제도에 대한 순응타협 정도가 높을수록 혁신제도의 기업 내 정착 정도가 높을 것이다.**

**가설 4: 기업들의 혁신제도에 대한 도전적 반응 정도가 높을수록 혁신제도의 기업 내 정착 정도가 낮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론

#### 1. 표본설계 및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일반산업용 물자 및 소프트웨어, 원자력 전용물자 및 전략기술, 방산물자 및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수거된 설문지는 282부였고, 이 중에서 이용 가능한 설문지는 276부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도출된 영향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에 적합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측정항목을 구성하였다. 혁신제도의 다양한 촉진환경들은 조성균(2007), Steinfield(2002), Moon &

Bretschneider(1997), 지식경제부(2008) 등의 자료에서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측정항목을 설정하였으며, 혁신제도 수용태도 측면인 순응타협, 도전적 반응은 심리적 반응 이론에 관한 연구인 Dowd et al. (1991)의 연구에 이용된 측정항목을 수정 적용하였다. 아울러 혁신제도 수용행동과 관련된 변수인 제도의 기업 내 정착은 Dhlstrom and Nygaard (1999)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설문을 통한 각 구성개념에 대한 질문은 해당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 (1), 동의하지 않음 (2), 보통 (3),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의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수를 제외하고 총 8개의 구성개념에 27문항으로 설계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측정항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 IV. 실증분석 결과

#### 1. 표본의 특성과 구성개념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설문 응답자 전체 276명 중 기업규모별로는 직원 수 1000명 이상이 56명(20.2%), 150명 이상~300명 미만이 53명(19.2%), 50명 이상~150명 미만이 102명(37.0%), 50명 미만이 65명 (23.6%) 으로 파악되었다. 거래품목의 경우 일반 산업용 물자 및 소프트웨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제도홍보	1.00							
(2) 서비스지원	0.15*	1.00						
(3) 인센티브	-0.06	0.38**	1.00					
(4) 모니터링	-0.26**	0.40**	0.32**	1.00				
(5) 법적제재	0.39**	0.20**	0.19**	0.02	1.00			
(6) 순응타협	0.26**	0.30**	0.37**	0.24**	0.41**	1.00		
(7) 도전적반응	-0.42**	-0.22**	-0.25**	0.04	-0.51**	-0.48**	1.00	
(8) 제도정착	0.22**	0.27**	0.21**	0.12	0.31**	0.57**	-0.58**	1.00
평균	3.23	2.86	3.18	2.82	3.50	3.40	2.71	3.29
표준편차	0.63	0.66	0.66	0.54	0.65	0.64	0.71	0.59

\* P < .05, \*\* P < .01

어 134명(48.5%), 군용물자 및 소프트웨어 69명(25.0%), 미사일 및 항공우주 관련물품 26명(9.4%), 화학물질 및 제조설비 16명(5.8%), 생물학물질 및 제조설비 2명(0.7%), 재래식무기 및 탄약 25명(9.2%), 기타 4명(1.4%)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직급별로는 임원급 이상이 25명(9.0%), 부장급 51명(18.5%), 과장급 70명(25.4%), 대리급이 76명(27.5%), 사원급이 54명(19.6%)의 분포를 보였다.

각 구성개념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각 구성개념들의 평균 중 법적제재가 3.50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전적 반응은 2.71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구성개념들 간의 관련성을 <표 2>의 내용과 같다

## 2.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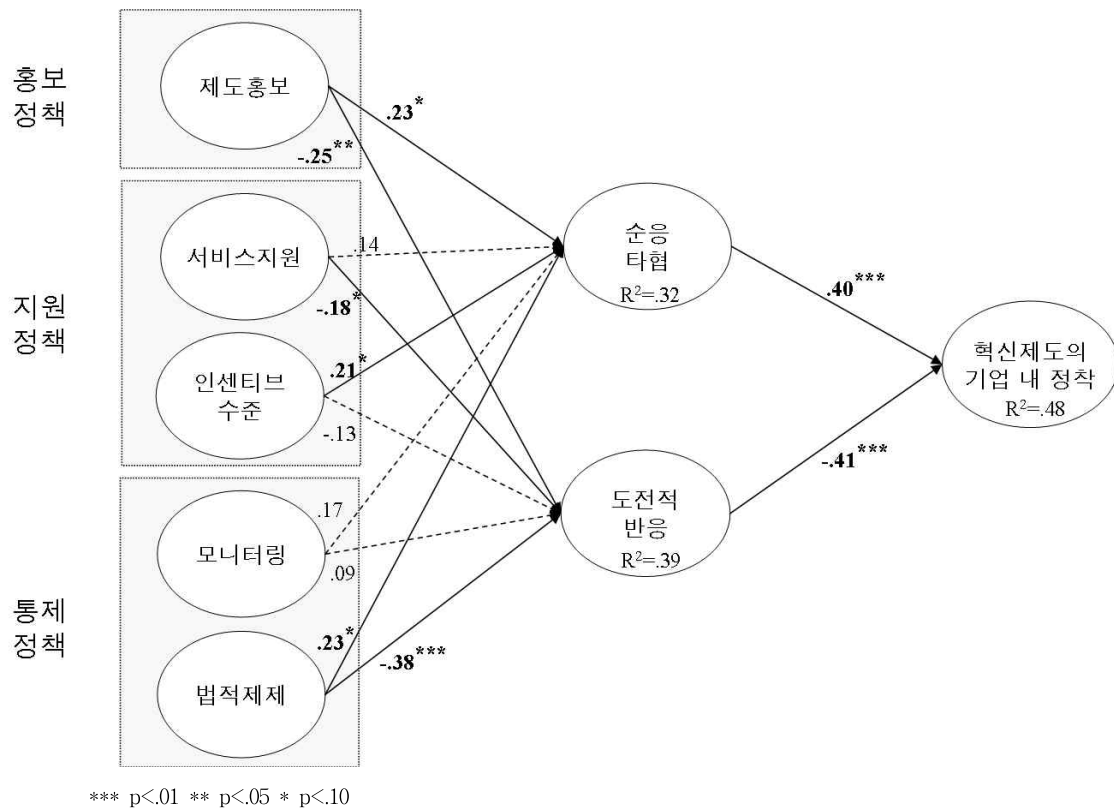
측정도구의 집중타당성은 (1) 측정항목들의 신뢰성, (2) 복합신뢰도, (3) 평균분산추출값, (4) 요인분석 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Hu et al. 2004, Komiak and Benbasat 2006).

<표 3>을 살펴보면 Cronbach's α 값은 0.71에서 0.85, 복합신뢰도 값은 0.84에서 0.90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에 있어서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평균분산추출값은 0.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Hu et al. 2004), 평균분산추출값(AVE)이 0.63~0.69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0.50 이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를 통하여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변 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t-값	Cronbach's α	C.R	AVE
제도홍보	PROM1	0.84	0.03	26.44**	0.85	0.90	0.69
	PROM2	0.84	0.04	20.67**			
	PROM3	0.80	0.06	14.30**			
	PROM4	0.84	0.05	18.27**			
서비스지원	SVCS1	0.83	0.10	8.40**	0.78	0.87	0.68
	SVCS2	0.77	0.13	6.13**			
	SVCS3	0.87	0.10	8.35**			
인센티브 수준	INCE1	0.81	0.07	10.92**	0.78	0.87	0.69
	INCE2	0.89	0.04	22.59**			
	INCE3	0.79	0.08	9.51**			
모니터링	MONI1	0.78	0.16	4.86**	0.71	0.84	0.63
	MONI2	0.83	0.17	4.75**			
	MONI3	0.78	0.18	4.29**			
법적제재	LAWR1	0.63	0.13	4.91**	0.76	0.85	0.66
	LAWR2	0.89	0.02	41.87**			
	LAWR3	0.89	0.04	24.68**			
순응 타협	COMP1	0.82	0.04	20.89**	0.80	0.87	0.63
	COMP2	0.84	0.05	18.13**			
	COMP3	0.79	0.05	15.11**			
	COMP4	0.71	0.08	8.74**			
도전적 반응	RESE1	0.83	0.03	23.82**	0.84	0.89	0.67
	RESE2	0.85	0.03	28.02**			
	RESE3	0.80	0.06	14.24**			
	RESE4	0.80	0.05	17.52**			
혁신제도의 기업 내 정착	ACEP1	0.88	0.03	34.29**	0.78	0.87	0.69
	ACEP2	0.79	0.06	12.61**			
	ACEP3	0.83	0.05	15.19**			

\*\* p < 0.01



(그림 1) 혁신제도 확산정책에 따른 수용 모델

<Appendix A> 참조).

관별타당성은 (1) 요인분석 결과, (2) 크로스 로딩 값, (3) 변수 간 상관관계와 분산추출값의 제공근 값의 비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Chin 1998; Fornell and Larcker 1981). <Appendix A>의 요인분석결과는 변수간 관별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Appendix B>에서는 크로스 로딩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각 잠재변수에 해당되는 측정항목들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게 할당되어 좋은 관별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다(Chin 1998; Straub et al. 2004). 아울러 평균분산추출값이 변수 간 상관관계의 제공값보다 클 때 관별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평균분산추출값은 0.63-0.69로 나타나 <표 2>의 변수간 상관관계의 제공인 0.0005-0.33보다 크기에 관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가설검증 결과

PLS의 결과해석은 내생변수의 R<sup>2</sup> 값과 경로계수값의 크기와 유의성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외생변수들은 순응타협 정도의 32%, 도전적 반응 정도의 39%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혁신제도 수용태도 변수들은 분산을 48%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생변수인 혁신제도 촉진환경들이 혁신제도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홍보정책은 순응타협 정도에 .23(p<.10), 도전적 반응에 -.25(p<.05)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혁신제도에 대한 홍보정책이 긍정적 태도는 높여주고 부정적 태도를 높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정책 요인들 중 서비스지원은 도전적 반응에

-.18( $p<.10$ )의 영향력을 미치지만 순응타협 정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부는 2007년 6월 산업자원부가 주체가 되어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를 전략물자관리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는데(전략물자관리원 2008),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기업의 부정적인 태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센티브 수준은 순응타협 정도에 .21 ( $p<.10$ )의 영향력을 미치지만 도전적 반응 정도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기업들을 지정하여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개별 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유예, 중개허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시행중인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들이 기업들의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높여주고 있음을 반증해 준다.

규제정책 요인들 중 모니터링은 혁신제도 수용태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니터링이라는 변수가 정부가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제도 이행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성격이 애매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비해 법적제재는 순응타협 정도에 .23( $p<.10$ )의 영향력을, 도전적 반응 정도에 -.38( $p<.01$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 제재가 도전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외생변수들 중 가장 큰 영향력으로 나타나 혁신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적 제재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지, 과징금부과, 형사처벌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재의 효력이 상당히 크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혁신제도 수용태도가 혁신제도 수용행동인 혁신제도의 기업 내 정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면 순응타협 정도는 .40 ( $p<.01$ )의 영향력을, 도전적 반응은 -.41( $p<.01$ )의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혁신제도의 수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수용태도를 낮추는 것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세계적인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앞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다양한 변화에 대하여 빠르게 적응하지 못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게 해 준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들은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국가 및 세계의 공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정책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를 수용하는 기업들이 반감을 갖는 경우도 많아, 제도의 확산이 늦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혁신제도의 예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를 통하여 혁신제도의 다양한 촉진환경들이 기업들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어서 기업들의 수용태도에 따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순응타협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홍보, 인센티브 수준, 법적제재 등의 다양한 촉진환경 요인들을 골고루 관리해야 한다. 혁신제도에 대한 긍정적 수용태도인 순응타협 정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도홍보, 법적제재, 인센티브 수준 등이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아울러 제도 홍보 및 서비스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분석결과 부정적 수용태도인 도전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법적제재, 제도홍보, 서비스지원의 순으로 나



타났다.

셋째, 혁신제도의 기업 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 수용태도를 높이는 것 못지않게 부정적 수용태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 수용태도인 순응타협 정도, 부정적 수용태도인 도전적 반응 모두 제도의 기업 내 정착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제도의 수용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하여 혁신제도 수용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외생변수의 설정에 있어서 체계성이 부족하였다. 그 결과 모니터링과 같은 변수는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증분석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가 없었다. 둘째,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종단적인 서베이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는 태도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본 연구와 관련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1] 조성균(2007), 무역대국의 선결과제, 수출통제 제도 이행: 산업자원부 2007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안보통상연구, 제1권 제1호, 145-170.
- [2] 지식경제부(2008), 전략물자·기술수출입 통합고시.
- [3] 지식경제부·전략물자관리원(2008), Yestrade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이용안내서.
- [4]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2006), 전략물자 수출관리 설문조사보고서.
- [5] Yestrade, www.yestrade.go.kr, 2010.

### [외국 문헌]

- [1] Allcorn, S., and Diamond, M. A. (1997), *Managing People during Stressful Times: The Psychological Defensive Workplace*, Westport, CO:Quorum Books.
- [2] Aschhoff, B., and Sofka, W. (2009), Innovation on Demand-Can Public Procurement Drive Market Success of Innovations?, *Research Policy*, 38, 1235-1247.
- [3] Brehm, J. W.(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NY:Academic Press.
- [4] Carroll, G. R. and Huo, P.(1986), Organizational Task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 Ecological Perspective: Findings from the Local Newspaper Indust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 838-873.
- [5] Chin, W. W. (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n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G. A. Marcoulides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295-336.
- [6] Dahlstrom R., and Nygaard A.(1999),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x Post Transaction Costs in Franchised Distribution Channel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6(2), 160-170.
- [7] Dowd, E. T., Milne, C. R. and Wise, S. L. (1991), The Therapeutic Reactance Scale: A Measure of Psychological Reactan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July/August), 541-545.
- [8] Fishbein, M.,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Addison-Wesley Co..
- [9] Fornell, C., and Larcker, D. (1981), Evaluating

-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pp.39-50.
- [10] Hu, X., Lin, Z., Whinston, A. B., and Zhang, H. (2004), Hope or Hype: On the Viability of Escrow Services as Trusted Third Parties in Online Auction Environment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5(3), 236-249.
- [11] Kimberly, J. R. and Evanisko, M. J.(1981), Organizational Innovation: The Influence of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Contextual Factors on Hospital Adoption of Technological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4): pp. 689-713.
- [12] Komiak, S. Y. X., and Benbasat, I., (2006), The Effects of Personalization and Familiarity on Trust and Adoption of Recommendation Agents, *MIS Quarterly*, 30(4), 941-960.
- [13] Moon, M. J., and Bretschneider, S. (1997), Can State Government Actions Affect Innovation and Its Diffusion? An Extended Communication Model and Empirical Test, *Technology Forecasting Social Change*, 54, 57-77.
- [14] Schuman, H., Johnson, M. P.(1976),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 161-207.
- [15] Starky, K. and Mckinlay, A. (1988), *Organizational Innovation*, Avebury, Aldershot.
- [16] Straub, D., Boudreau, M.-C., and Gefen, D. (2004), Validation Guidelines for IS Positivist Research, *Communications of the AIS*, 13, 380-427.
- [17] Swan, J. A.(1995), Exploring Knowledge and Cognitions in Decisions about Technological Innovation: Mapping Managerial Cognitions, *Human Relations*, 48(11), 1241-1270.
- [18] Young, M. and Post, J. E. (1993), Managing to Communicate, Communicating to Manage: How Leading Companies Communicate with Employees, *Organizational Dynamics*, 22, 31-43.

<Appendix A> 요인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PROM1 PROM2 PROM3 PROM4	0.84 0.84 0.80 0.84							
SVCS1 SVCS2 SVCS3		0.83 0.77 0.87						
INCE1 INCE2 INCE3			0.81 0.89 0.79					
MONI1 MONI2 MONI3				0.78 0.83 0.78				
LAWR1 LAWR2 LAWR3					0.63 0.89 0.89			
COMP1 COMP2 COMP3 COMP4						0.82 0.84 0.79 0.71		
RESE1 RESE2 RESE3 RESE4							0.83 0.85 0.80 0.80	
ACCE1 ACCE2 ACCE3								0.88 0.79 0.83

<Appendix B> 측정항목과 잠재변수간 상관관계(크로스 로딩)

	(1)	(2)	(3)	(4)	(5)	(6)	(7)	(8)
PROM1	0.84	-0.16	-0.03	-0.28	0.42	0.17	-0.39	0.22
PROM2	0.84	-0.21	-0.05	-0.23	0.30	0.21	-0.30	0.16
PROM3	0.80	-0.10	-0.02	-0.17	0.28	0.24	-0.31	0.21
PROM4	0.84	-0.03	-0.06	-0.17	0.38	0.23	-0.33	0.18
SVCS1	-0.10	0.83	0.42	0.35	0.23	0.21	-0.26	0.20
SVCS2	-0.13	0.77	0.18	0.29	0.15	0.18	-0.09	0.22
SVCS3	-0.14	0.87	0.35	0.35	0.15	0.35	-0.21	0.28
INCE1	-0.05	0.36	0.81	0.24	0.20	0.30	-0.17	0.31
INCE2	0.06	0.34	0.89	0.20	0.27	0.34	-0.29	0.22
INCE3	-0.17	0.31	0.79	0.35	0.11	0.27	-0.15	0.08
MONI1	-0.12	0.29	0.20	0.78	0.14	0.19	-0.01	0.13
MONI2	-0.23	0.31	0.28	0.83	-0.02	0.20	0.04	-0.02
MONI3	-0.27	0.36	0.23	0.78	-0.06	0.18	0.04	0.20
LAWR1	0.17	0.08	-0.03	0.06	0.63	0.19	-0.19	0.14
LAWR2	0.41	0.27	0.34	0.06	0.89	0.43	-0.57	0.29
LAWR3	0.36	0.11	0.15	-0.04	0.89	0.33	-0.48	0.38
COMP1	0.07	0.33	0.30	0.19	0.28	0.82	-0.33	0.53
COMP2	0.03	0.37	0.34	0.35	0.25	0.84	-0.33	0.42
COMP3	0.39	0.18	0.34	0.19	0.45	0.79	-0.48	0.43
COMP4	0.30	0.12	0.17	0.02	0.32	0.71	-0.33	0.48
RESE1	-0.45	-0.07	-0.16	0.10	-0.48	-0.35	0.83	-0.52
RESE2	-0.30	-0.24	-0.30	0.03	-0.50	-0.49	0.85	-0.54
RESE3	-0.35	-0.18	-0.21	-0.01	-0.41	-0.37	0.80	-0.39
RESE4	-0.22	-0.30	-0.18	-0.04	-0.43	-0.32	0.80	-0.49
ACCE1	0.26	0.32	0.31	0.15	0.41	0.61	-0.56	0.88
ACCE2	0.03	0.22	0.09	0.10	0.10	0.43	-0.37	0.79
ACCE3	0.25	0.16	0.19	0.05	0.32	0.39	-0.53	0.83

● 저 자 소 개 ●

---



**이 건 찬 (Geon Chan Lee)**

경희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외래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혁신의 수용과 확산, BSC(Balanced Scorecard) 등 기업 및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방안, 전략 및 지식경영, 산업기밀보호 등이다.



**강 인 원 (Inwon Kang)**

경희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멀티 채널에서의 신뢰전이(trust transfer in multi-channels), 소비자 의사결정프로세스, 지식경영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그의 논문은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Information and Management, Behavi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Mobile Communications, Tourism Management,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등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